

국립중앙도서관

I S S U E P A P E R

이슈페이퍼

국립중앙도서관의 웹툰 수집 현황과 발전방안

Vol. 15

2023. 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웹툰 수집 현황과 발전방안

배진경 주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Vol. 15
2023. 6.

국립중앙도서관 ISSUE PAPER 이슈페이퍼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5호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78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s://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I. 도서관자료로서 웹툰	02
II. 국립중앙도서관의 웹툰 수집 현황	05
1. 수집대상	05
2. 수집 방법 및 근거	05
3. 추진 경과	06
4. 수집 자료의 등록	07
5. 수집 자료의 서비스	08
6. 수집 자료의 보상금 지급 기준	09
III. 한계와 고민	10
1. 최종 작품 중심의 수집	10
2. 보존가치 판단의 문제	10
3. 연재형 자료 ISBN 발급 중단에 따른 웹툰 납본 중단	11
IV. 발전방안	11
1. 기관 협력을 통한 수집	11
2. 미수집 자료 현황 파악 및 수집	12
3.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12
참고문헌	13
주요 키워드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웹툰	

국립중앙도서관의 웹툰 수집 현황과 발전방안

배진경 주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요약

2022년 6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가 11년 만에 개정되었다. 온라인 자료는 그 범위와 종류가 무한하다 보니 고시를 통해 주요 수집대상의 종류와 형태 등을 한정하고 있다. 도서관의 주요 수집 자료가 도서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대의 지식·정보·사회·문화 등을 담았다면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이든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새롭게 명시한 자료는 웹툰, 웹소설, 음원, 오디오북 등으로 이 중 웹툰은 산업 규모가 2017년 3,799억 원 수준에서 2021년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성장한 중요한 콘텐츠다. 웹툰은 그림으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생생하게 반영하는데, 문화자원으로서 높은 가치에 비해 작품의 수집·보존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편이다. 웹툰의 법적 정의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만화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었는데,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인정과 이에 따른 수집·보존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웹툰의 수집 방법, 수집 근거, 추진 경과 및 등록·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웹툰 수집 과정에서 당면한 한계와 고민을 바탕으로 ① 기관 협력을 통한 수집, ② 미수집 자료 현황 파악·수집, ③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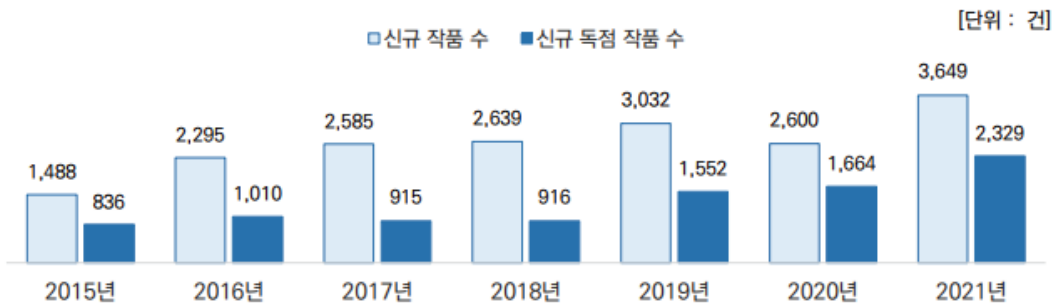
I. 도서관자료로서 웹툰

2022년 6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11년 만에 개정되었다 (<표 1> 참조). 온라인 자료¹는 범위와 종류가 무한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는데, 「고시」에서 그 종류와 형태 등을 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도서관의 주요 수집대상이 도서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시」에서 명시했듯이, 시대의 지식·정보·사회·문화 등을 담았다면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이든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

<표 1>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

구분	2011. 1. 3. 시행	2022. 6. 1. 시행
제3조 (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2) 음성 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 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개정된 고시에서 새롭게 명시한 자료 중 웹툰은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시대의 사회·문화를 생생하게 반영한다. 2021년 기준 연간 3,649건 이상의 신규 작품이 생산되었으며(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34)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웹툰 신규(독점) 작품 수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2).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도서관법」 제3조).

웹툰의 법적 정의는 2023년 3월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표 2> 참조). 또한 ‘만화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었는데,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인정과 이에 따른 수집·보존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신규 조문 대비

구분	2021. 6. 23. 시행 [2020. 12. 22. 일부개정]	2023. 9. 22. 시행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 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신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13조의3 (만화의 보존 및 관리) * 신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보존·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식별체계 요구, 저작권 보호 관련 논의는 활발하나² 작품의 수집·보존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다. 웹툰 역시 디지털 자료로 적시에 수집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는 휘발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대표 포털사이트인 야후 코리아(Yahoo Korea), 파란(Paran) 등을 통해 연재되었던 많은 초창기 웹툰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와 함께 사라졌는데(이재나 외, 2015, 124) 이는 불과 11년 전의 일이다. 2008년 ‘야후! 카툰세상’을 통해 연재했던 <기안84 단편선>은 현재 작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고, 이외에 많은 작품의 원본과 연재 목록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또한 웹툰 태동기의 대표작인 <스노우

2 2022~2023년 5월 개최된 웹툰 관련 국회토론회: (1) 디지털시대의 웹툰제작과 기술 포럼, (2)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3) 웹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4) 인앱 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5)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켓>은 개인 누리집에서 연재되었는데(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11) 사이트 개편으로 초창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다(<표 3> 참조).

<표 3> 웹툰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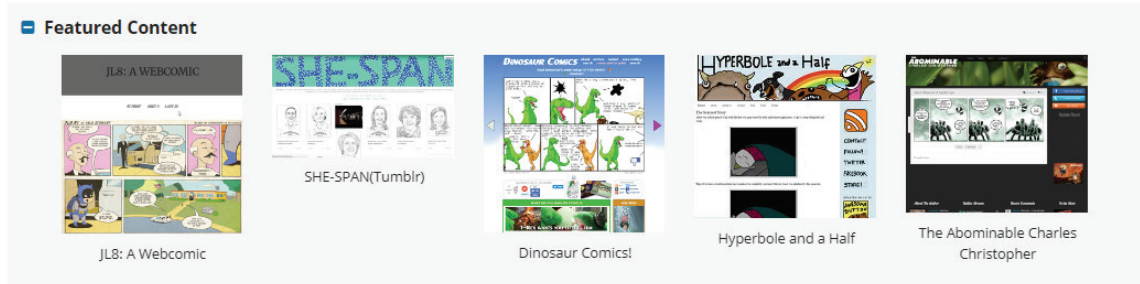
시기	연도	이슈
태동기	1996	박무직, 천계영과 같은 작가들을 선두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디지털 원고 작품이 등장
	1998	권윤주는 스노우켓(www.snowcat.co.kr)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그린 일기만화를 올림
	1999	'디지털 조선일보'가 만화 전문웹진 만화조선을 오픈해 1997년 4월 3일 연재를 시작한 박광수의 <광수생각>을 디지털화해 업데이트
	2000	심승현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파페포포 메모리즈>를 연재. 초기의 웹툰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들을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인 복제와 공유를 통해 웹툰은 빠르게 이용자들에게 확산됨
	2001	1월부터 '일간스포츠'에 양영순의 4페이지 반전 개그만화 <아색기가>가 연재되었으며, 11월부터는 정철연의 <마린블루스>가 홈페이지에 연재
발전기	2003	포털 '다음'이 뉴스 섹션에 '만화속세상'이라는 웹툰 코너를 개설
	2003	본격적으로 세로 스크롤을 활용한 작품으로서 인정받은 강풀의 <순정만화> 등장
	2004	만화 서비스를 통해 3위권 안으로 진입하고자 했던 '파란'과 엠파스 만화 서비스에 파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가치수의 만화를 확보
	2005	네이버가 웹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웹툰은 포털사이트의 주요 콘텐츠 비즈니스 영역이 됨
	2005	<위대한 썬비>를 통해 장편의 서사 전개로 작품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로 스크롤의 웹툰 인터페이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만화 연출까지 선보임
	2006	강풀 작가의 <아파트>가 영화화됨
	2008	야후 코리아에서 <야후! 카툰세상>을 런칭하면서, 이말년, 귀귀, 기안 84 등 탈형식 작가들 대거 영입
확장기	2009	아이폰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반의 웹툰 서비스 시작
	2009	SK 툰도시의 등장, 그리고 네이트+누룩 미디어 탄생
성숙기	2013	네이버와 다음이 양강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털 사이트 네이트가 웹툰 서비스를 강화, 모바일웹을 기반으로 한 올레웹툰(KT), 티플레이(SKT), 메신저 서비스 기반의 카카오페이지 웹툰이 등장하며 중위권 그룹 간 경쟁을 촉발시킴
	2013	레진 코믹스의 등장으로 유료화 웹툰의 인식 확산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만화 유통환경 개선 방안

웹툰은 국내에서 처음 시작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콘텐츠로 해외 도서관의 수집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제공하는 Webcomics Web Archive이나, 100건 이내의 컬렉션으로 규모가 작고(국립중앙도서관, 2022, 94) 수집된 자료를 보면 국내 연재형 웹툰과 차이가 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웹툰 수집 현황을 살펴보고 수집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OLLECTION
Webcomics Web Archive

About this Collection [Collection Items](#)



[그림 2] 미국의회도서관 웹코믹스 컬렉션

(출처: <https://www.loc.gov/collections/webcomics-web-archive/about-this-collection/>, 인용일: 2023. 5. 30.)

II. 국립중앙도서관의 웹툰 수집 현황

1. 수집대상

일반적으로 웹툰은 특수한 환경이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재되는 만화를 의미하지만(국립중앙도서관, 2022, 68) 「만화진흥법」에서 웹툰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즉, 연재형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기기 등으로 제작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를 웹툰으로 수집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형식이나 유통 방식 등이 기존의 자료와 현저히 다른 연재형 웹툰 수집을 설명하고자 단행본(전자책)으로 출판되지 않은 이미지형 웹툰만을 다루고자 한다.

2. 수집 방법 및 근거

국제표준도서번호(이하 ISBN)가 웹툰에 적합한 식별체계인가 하는 논의와 관계없이 현재 웹툰의 납본 의무는 ISBN 발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표 4> 참조).

<표 4> 납본 의무와 수집 방법

ISBN 발급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		자료 제출자	법적 근거
○	○	납본 대상 * 연재자료는 연재 완료 후 납본	ISBN 발급자	「도서관법」 제21조
X	X	납본 외 수집대상	저작권자 등	「도서관법」 제22조

ISBN을 발급받은 웹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따라 면세 대상인 동시에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발급자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수집하며, 연재 중인 자료는 연재 완료 후 납본받고 있다.

ISBN을 발급받지 않은 웹툰은 납본 의무는 없으나 수집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수집(이하 납본 외 수집)한다.

자료의 발행·제작자로부터 허락받아 수집하는 방법 외에 「도서관법」 제22조 제2항,³ 「저작권법」 제31조 제8항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상의 자료를 직접 복제(크롤링, 다운로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협조의 어려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해당 방법은 주로 학술논문과 공공간행물 수집에 적용하고 있다.

3. 추진 경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소멸되기 쉬운 웹자원을 국가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자 2004년 오아시스(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사업을 시작하였다. 웹사이트, 국가적 재난·이슈·행사 관련 웹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는데, 2016년 구축한 <만화에서 웹툰까지> 컬렉션에서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웹툰 일부가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3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 웹사이트 | 915건

🔍 제목순 🔗 URL 📄 발행처 📅 수집일



🌐 <http://blog.daum.net/> ⌚ 변경기록

☐ 웹사이트 **청렴튼 <9회> 부정부패단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겠다!**

-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연도 : 2009
- 수집일 : 2016.11.03
- 이용범위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보기

[그림 3] OASIS 수집 웹툰

(출처: <https://nl.go.kr/oasis>, 인용일: 2023. 5. 30.)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2016년 시작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주요 납본 대상은 전자책이었으며 웹툰의 시범 납본은 2020년에 시작하였다. 시범 납본 이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 수집 관련 업무협약을 2019년에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집한 모든 웹툰을 연 1회 이관받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웹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뷰어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이로써 동시 접속자 수 제한 기능과 함께 세로 스크롤 방식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고시」 개정,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를 통해 웹툰의 수집 전략과 보상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3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웹툰의 ‘납본 외 수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수집 자료의 등록

웹툰 한 화의 이미지 파일은 주로 1~100개 내외로 분리되어 입수되는데, 수집한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에 반입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가 장서로 영구 보존한다.

메타데이터는 웹툰의 화 단위를 기준으로 한국목록규칙(KCR) 등에 따라 MODS⁵ 형식으로 작성한다. 자료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 수집 과정에서 입수되는 기초 메타데이터가 중요하며 필요시 플랫폼 등 외부 정보원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다. [그림 4]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웹툰 자료의 예시이다.

5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메타데이터 객체 기술 스키마로, 디지털 자원에 특화된 목록형식. 2002년 미국의회도서관이 MARC(MACHine Readable Catalog)와 DC(Dublin Core)를 절충하여 만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위대한 방옥숙. 50화, 결전의 날 3 = Great Oksuk



표제/저자사항	위대한 방옥숙. 50화, 결전의 날 3 = Great Oksuk / 매미 글 희세 그림
발행사항	[김포] : 스튜디오매미, 2019
형태사항	JPG 이미지 파일 16개 (20.34 MB) : 천연색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7952029
분류기호	한국심전분류법> 810
주제명	웹툰[webtoon]

[그림 4]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소장자료 검색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인용일: 2023. 5. 30.)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수집한 웹툰은 약 16만 건(화)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 다만, 연재형이 아닌 웹툰도 포함된 수치이며 대부분 보존을 위한 비공개 자료이다(<표 5> 참조).

<표 5> 최근 3년간 웹툰 납본·수집 추정치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종(작품)	건(화)	종(작품)	건(화)	종(작품)	건(화)	종(작품)	건(화)
납본	6	135	59	192	8	34	73	361
납본 외	2,316	133,116	321	11,948	144	15,139	2,781	160,203
합계	2,322	133,251	380	12,140	152	15,173	2,854	160,564

* e-Pub, PDF 등 전자책 버전의 웹툰은 제외된 수치임.

5. 수집 자료의 서비스

소장한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데 실제 파일의 열람은 11가지 서비스 범위⁷에 따른다. 이처럼 자료의 특성, 저작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비스 범위를 정하지만, 파일을 제출하면 모두 공개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자료의 납본·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외 이용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판매용 자료는 민간의 사적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기에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제출자의

6 현재 자료 등록 시 웹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세 가지 조건(① 온라인 자료 납본·기중 수집으로 입수, ② 장르를 '만화'로 등록, ③ 파일형식이 JPG 등 이미지 파일)에 따라 추출한 수치이다.

7 외부공개, 비공개, 국립중앙도서관 공개, 국립중앙도서관/협력기관 공개,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협력기관 공개,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실 공개 등

허락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한다. 즉, 제한적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도서관 내 전용 PC에 설치된 보안 뷰어로 이용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으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설정으로 화면 캡처, 다운로드, 출력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 메일, 자료 공유 사이트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식 저장장치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6. 수집 자료의 보상금 지급 기준

납본·수집한 자료에 대한 보상금은 자료의 가치평가나 이용량에 기반한 금액이 아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거래가격을 구입비 개념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수집하는 모든 자료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표 6> 참조).

<표 6> 도서관자료 보상금 지급 기준

<p>※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p> <p>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p> <p>*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p>

웹툰은 플랫폼마다 가격 정책과 표시 단위가 달라 시가(市價)를 책정하기 어렵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었으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캐시·쿠키·코인 등으로만 표시되었으면 수집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표 7> 참조).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동시 이용자 수’로 보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표 7> 납본(수집)보상금 원화 환산 예시

플랫폼	가격	납본(수집)보상금		총전단가	
A	10,000캐시	10,000원	=10,000(캐시)*1(원)	1,000캐시=1,000원	1캐시=1원
B	쿠키 100개	10,000원	=100(쿠키)*100(원)	쿠키 1개=100원	쿠키 1개=100원

III. 한계와 고민

1. 최종 작품 중심의 수집

작가의 작업 파일, 제작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 이용자의 댓글 등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음원 제작 과정의 가이드파일까지 수집하지 못하듯이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선택적 수집만 가능하다. 즉, 전자책, 음원,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 산출물을 중심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

2. 보존가치 판단의 문제

‘납본’은 모집단이 분명하므로 납본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후,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모두 수집하는 방식이다. 반면, ‘납본 외 수집’은 모집단이 없고 수집대상이 방대하므로 제외 기준보다는 우선 수집 기준을 정하여 수집한다(<표 8>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웹툰의 ‘납본 외 수집’을 위한 가치 판단 시 담당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수집한다. 정량적 수치인 인기도가 높은 작품, 내용을 판단하여 결정된 수상작 등을 우선 수집대상으로 보는데, 특히 인기도에 따라 수집할 경우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장르 중심으로 수집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웹툰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추후 납본과 같은 포괄적인 수집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표 8> 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우선 수집대상

※ 웹툰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포털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기도(TOP 100, 판매량, 조회수 등) 높은 작품을 우선 수집한다.
- 포털 플랫폼 외 연재형 웹툰은 영화, 드라마화 OSMU(One Source Multi Use) 진행 작품을 우선 수집한다.
- 연재형은 완결 이후 수집하되 소실 가능성이 높은 자료(연재 중단, 장기 연재, 마지막 연재일로부터 2년 경과 자료)는 완결 전 수집할 수 있다.

3. 연재형 자료 ISBN 발급 중단에 따른 웹툰 납본 중단

자료 식별체계는 특정 자료를 유일하고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ISBN 발급이 전자출판물 인정과 면세 대상의 기준이 되므로 연재형 웹툰에 대한 ISBN 발급을 특수한 사례로 지속해 왔다. 현재 정부 등과 합의하여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재형 웹툰에 ISBN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식별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보면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⁸의 적용과 함께 데이터 표준화 및 웹툰 아카이브 추진 계획을 다루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47-148). UCI로 전환 시 ISBN 덕분에 납본 의무가 있던 웹툰이 납본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ISBN 이외의 식별체계가 적용되는 콘텐츠도 필요시 납본 영역에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등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이 반영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IV. 발전방안

1. 기관 협력을 통한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영구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후대에 남기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웹툰의 영구보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식별체계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자료와 수상작은 콘텐츠 가치가 검증되었으므로 수집·보존 대상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현재 오디오북 제작 지원사업,⁹ KCI(Korea Citation Index) 학술지

8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하고 영구한 식별자. 2008년에 방송통신표준(KS X OT0058)으로 채택되었으며, 2012년 2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기구로 UCI를 관리하고 있다.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1차 오디오북 제작 지원사업 공고>에서는 진흥원 검수 완료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오디오북을 납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원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평가¹⁰ 등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출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치 높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웹툰 수집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미수집 자료 현황 파악 및 수집

웹툰에 새로운 식별체계를 적용해 데이터 공유와 통계 확보가 가능해지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쉽게 생산·소멸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낱본·수집 체제 내에서 웹툰 수집과 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하반기에 웹툰을 포함한 주요 수집대상의 유통 현황(목록) 파악, ISBN 발급 여부, 입수 현황 조사사업으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입수 자료의 수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이 왜 웹툰까지 수집해서 업계의 영역을 침해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웹툰 관련자의 의견도 아직 존재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188). 하지만 웹툰 수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구 보존과 후대 전승에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편견이다.

웹툰 수집·보존 체계가 지속되려면 그 필요성, 수집 기관과 수집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 제작사,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이 필요하다.

웹툰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자료라면, 소실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지금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2023년 인기 웹툰이 5년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10 한국연구재단 <2022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서는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항목에서 ‘학술지를 낱본기관(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2).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
-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건.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웹툰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기초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만화 유통환경 개선 방안.